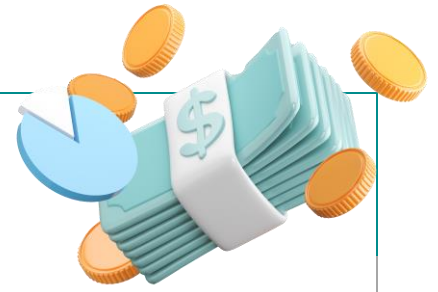


재무부의 바이백 확대

해외채권 | 2026.8.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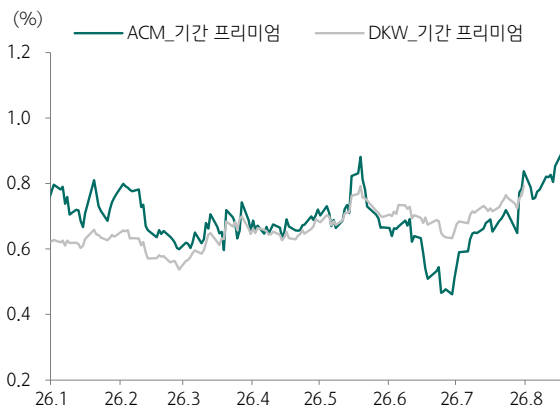
Analyst 허성우 deanheo@hanafn.com

금리 안정에 진심인 베센트

바이백 확대에도 금리 추세 전환은 역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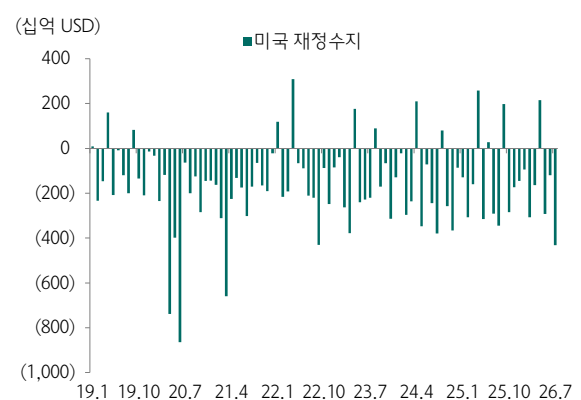
-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재무부가 급등하는 장기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. 미 재무부는 10~20년 및 20~30년 구간의 장기 명목 이표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바이백(Buyback) 규모를 기존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.
- 이번 조치는 9/9부터 적용되어 11/4 예정된 4분기 QRA(국채발행계획) 전까지 유지된다. 재무부는 바이백 수행 시 고품질 매도 제안(Offers)이 대거 물리는 등 시장의 강력한 유동성 요구를 반영한 '유동성 지원' 조치라고 설명하지만, 본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장기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강제로 눌러 유권자들의 체감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판단이다.
- 특히 이번 발표는 불과 2주 전 3분기 QRA에서 바이백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, 9월 법인세 수입 유입에 따라 단기채(T-Bill) 발행을 계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. 정례 스케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기습 개입에 나선 배경에는 미 장기 금리와 모기지 금리 급등이 자리 잡고 있다.
- 재무부는 단기채 발행을 대폭 늘려 확보한 자금으로 유통시장의 비지표물(Off-the-run)을 사들임으로써, 전체 부채 규모는 유지하되 시장이 소화해야 할 듀레이션 공급을 줄여주는 '재무부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(OT)'를 단행한 것이다.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TGA 자금은 은행 지준을 확충해 단기적으로는 기간 프리미엄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.
- 그러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례적 플레이가 과연 장기 금리 상승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. 바이백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도 31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.
- 무엇보다 베센트의 전략은 현재 시장이 직면한 거시적 리스크들을 과소평가하고 시장 타이밍에 베팅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.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초장기 회사채 공급 확대와 BOJ 금리 인상 등 장기 금리 상방 요인은 여전하다.
- FIMA 레포 시설 언급, QRA 이표채 문구 유지, 그리고 2주 뒤 긴급 바이백 발표까지 베센트는 금리 안정에 진심이지만, 재정 건전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테크니컬한 바이백 수단만으로는 금리 추세를 전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.

도표 1. 미국 10년물 기간 프리미엄
: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



자료: Fed,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2. 미국 월간 재정수지
: 재정 우려는 여전한 상황


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